

1번

1. “공감이란 다른 이의 상황이나 상태 및 감정을 본인과 동기화하여 타자를 이해하는 것이다. 제시문들은 공감에 대해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인다.” 1문단에서 이렇게 정의를 설명한 것은 좋습니다. 다만 2문단과 아이히만은 상태와 감정 모두 이해 못했음을 제시해주셨어야 되는데, 단지 공감 o x 로만 구분 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외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또 시의 화자는 상태 감정으로 구분해주셨네요. 대칭성이 없습니다. 아쉬운 포인트예요.

2. “(다)에 의하면, 아킬레우스는 뤼카온에게 둘다 결국엔 죽는다고 말한다. 이는 타자와 나를 동일화 하는 공감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다)에 의하면 아킬레우스는 결국에 뤼카온을 죽인다. 아킬레우스는 결국에는 본인도 죽을 운명이고, 그대도 결국에는 죽을 운명이라면서 그것이 지금임을 말한다. 그럼으로써 운명에 의한 죽음의 합리화를 이뤄낸다. 이는 아킬레우스가 뤼카온의 처지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않은 것이다. 뤼카온이 살려달라는 애원을 하는 상황에서 죽음을 선사한 것은 전체로 보면 뤼카온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 또한 아쉽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는 상황에 대한 공감이지만, 감정에 대한 공감이 이뤄나지 않아 총체적 공감 실패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히만은 둘다 x, 화자는 둘다 o, 아킬레우스는 상황은 o 감정은 x 이렇게 대응 해주셨어야 하는데 대응점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단지 결과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 아쉬운 답안입니다.

3. 이 문제에 대해 2012 연세대학교 낭비 1번문제와 동일한 유형이니, 풀어보시면서 공통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번

1. “람은 항상 이성적일 수 없으며 감성의 영역도 지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폭력은 이성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악한 행위이며, 정당화되기가 어렵다. 폭력에 대해서는 행하기 전에 이성의 영역으로 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상상을 해 보지 못하거나, 상상을 했더라도 결국에 폭력을 행한다면, 이는 사회에서의 보편 타당한 논리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공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행위 주체가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상상해보는 여부 및 폭력을 행하였는지의 여부가 그 두 가지 기준이다. 상상을 통한 본인의 행동에 대한 사고 및 폭력을 이행하지 않음 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상대방에 대하여 공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답안의 작성 방향자체가 잘못되어 내용보다는 형식상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2. 이 문제에 따르면 상상, 폭력, 주체의 개념을 사용하여 제시문에 도입하고 이로 인해 도출된 결과에 따라 공감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3. 하지만, 답안 서술에서는 3개념을 사용해 공감에 대해 이미 정의를 내려버린 상태로 제시문에 도입하는 방향이 역으로 되버려 사실상 답안에서 요구하는 공감의 정의를 제시문에서 내리지 못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사고로 인해 판단해버렸습니다. 따라서 방향자체가 잘못된 오답으로 발문 대응 2012 연세대학교 새로움 2번문제를 풀어보면서 공통점을 느껴보세요.